

與 ‘전병헌 의혹’ 곤혹... “결자해지” 기류도

전 수석은 롯데 홈쇼핑 로비 연루 의혹 강하게 부인

적폐청산 동력 상실 우려...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롯데홈쇼핑 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전 수석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현직 청와대 수석을 몰아세울 수도 없는 데다 전 수석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전 수석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로비 의

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전 수석 문제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 수석의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민주당의 이런 기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의 동력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의 포도라인에 서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전 수석이 계속 버티면 적폐청산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중진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이런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15일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 이날 자신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A4용지 반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여러 억측보다는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언제든지 나가서 소명할 준비가 돼 있다.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못 함으로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 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특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의혹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폐청산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의 50% 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수석 문제가 수습되지 않으면 여론의 위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잘 해 봅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연 정책위의장,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연철뉴스

국민의당 “홍종학 임명 강행 땀 예산안 협조 못해”

보고서 채택 무산 비난에 발끈... 한국당 “국회 파행” 경고

국민의당은 15일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어(對興) 압박에 나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홍 후보자 사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자 자유한국당 역시 임명 강행시 국회 파행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대응책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부결)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와 예산안 처리 연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두 사안을 완전히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술밥을 먹었던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민주당이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미리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영향을 미

쳤다 분석이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의 “호남의 민심이 어떤지 되돌아보라”, “보고서가 거부되도록 지시한 김동철 원내대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는 최근 발언으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감정까지 상한 상태다.

최 최고위원은 “홍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체가 임명 동의로 비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채택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 기류였다”면서 “김동철 원내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틀어막아 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묘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의 연계를 없다. 추후도 할 생각이 없다”면서 “예산안은 당연히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의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의 종언(終焉)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여야 세법전쟁 시작

384건 심사...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놓고 공방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모두 384건에 달하는 세법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법안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 200억~2000억원 구간은 현행처럼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포인트 인상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세금을 더 받겠다

며 제시한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 같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법인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함을 표하고 소득세율 조정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근로자 4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한다”며 “납세자 상당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등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기생주에 따라 과세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를 얼마나 높여 할지는 전략적인 부분인 만큼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중도보수통합’ 갈 길 바뀐 劉

한달내 성과 없으면 추가 탈당 가능... 오늘 국민의당과 토론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한 달 내에 중도보수 통합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승민 대표가 추가 탈당을 시사한 일부 의원들과 약속한 대로 12월 중순까지는 중도보수통합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사령탑에 앉자마자 한 달 이내에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만큼 유 대표의 마음은 바쁘다.

바른정당 잔류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중도보수 개혁세력의 통합을 일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 9명의 복당을 허용한 이후 통합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당내간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의 연대 또는 통합 논의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일단 양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을 주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통합포럼은 양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바른정책연구소 후원으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안보와 지역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지경기자 jkpark@

예열되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홍문종·김성태 등 거론... 중도 표심 ‘캐스팅보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대어(對興) 원내투쟁을 이끌고, 제1야당이로서 정책을 통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홍준표 대표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핵심 과제다.

15일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나경원·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이상 4인)·김성태(3인)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는 김성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로, 김무성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이에 맞설 친박계 후보군은 유기준·홍문종 의원이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홍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나경원·조경태·한선교 의원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나 정치 성향은 차이가 있다. 이번 경선은 당내 확실한 주도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져 중도 성향 표심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전형일시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45 |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전형일시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20 | 2017. 12. 15(금) 오후 2:30 |
| | | 신학과(Ph.D.) | 6 | 2017. 12. 15(금) 오전 9:40 |
| | | 목회학과(D.Min.) | 2 | 2017. 12. 15(금) 오전 9:40 |
| | | 유아교육학과(D.Ed.) | 5 | |
| | | 사회복지학과(D.S.W.) | 5 | |
| 일반대학원 |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D.C.S.) | 5 | |
| | | 코칭심리학과(D.Psy.) | 5 | |
| | | 통합예술치료학과(D.C.S.) | 15 | |
| 석사 | 신학과(Th.M.) | 25 | 2017. 12. 16(토) 오후 2:40 | |
| | 유아교육학과(M.Ed.) | 8 | |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15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10 | |
| | | 사회복지학과(M.S.W.) | 20 | |
| 국제대학원 | 석사 | 평생교육학과(M.Ed.) | 10 | |
| | | 한국어교육학과(M.A.) | 20 | |
| 음악대학원 | 석사 | 음악학과(M.A.) | 6 | |
| | | 실용음악학과(M.A.) | 6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인물이 있는 대학·인물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